부모교육연구, 제23권 1호, 2026
Korean Journal of Parent Education
Vol. 23, No. 1, pp. 5-36

입양부모 양육태도 유형에 관한 잠재프로파일 분석 연구

김외선* · 안재진**

본 연구는 잠재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을 활용하여 입양부모의 양육태도 하위집단을 유형화하고, 도출된 양육태도의 유형별 특성과 입양아동 및 부모 특성에 따른 차이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내 입양가정의 입양부모 216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설문 및 부모양육태도 검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양육태도의 하위영역은 지지표현, 합리적 설명, 성취압력, 간섭, 처벌, 감독, 과잉기대, 비일관성의 8개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양육태도 유형을 분류하고, 입양아동 및 부모의 특성에 따른 양육태도 유형의 분포 및 영역별 평균 차이를 검증하였다. 입양부모의 양육태도는 네 개의 잠재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무관심형'(11.6%)은 모든 양육태도 영역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고, '허용형'(32.4%)은 지지표현과 합리적 설명은 높으나 감독과 통제가 낮았으며, '권위형'(40.7%)은 긍정적 양육태도와 적절한 감독이 균형을 이루었고, '권위주의형'(15.3%)은 성취압력, 처벌, 과잉기대가 과도하게 높은 특성을 나타냈다. 입양아동의 성별과 연령, 입양 당시 연령에 따른 양육태도 유형 분포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입양부모의 출산 경험, 입양 당시 자녀 수, 입양 전 결혼기간에 따라서는 양육태도 유형 분포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출산 경험이 있는 부모는 권위형 비율이 높았고, 입양 당시 자녀가 없었던 가정은 허용형 경향이 강했으며, 결혼기간이 긴 부모는 권위주의형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양육태도 영역별 평균 차이 분석에서는 성취압력, 감독, 처벌, 과잉기대 영역에서 아동과 부모 특성에 따른 차이가 반복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아동 연령이 높을수록 성취압력과 과잉기대가 증가하고, 출산 경험이 있는 부모는 감독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 자녀의 발달 단계와 가족 맥락에 따른 양육태도의 조정 과정을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입양부모의 양육태도를 단일한 집단 특성으로 파악하는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고, 입양가정 내 양육태도의 이질성을 개인 중심 관점에서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지닌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입양부모에 대한 부모교육 및 사후지원이 양육태도 유형과 가족 맥락을 고려한 차별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 입양부모, 양육태도 유형, 잠재프로파일분석

논문 투고일 : 2026. 01. 28. 최종심사일 : 2026. 03. 09. 게재확정일 : 2026. 03. 30.
* 사)입양가족상담교육협회 이사. 한국입양가족상담센터장
**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Ahn, Jaejin, Gachon University, 1342 Seongnam-daero, Sujeong-gu, Seongnam-si, Gyeonggi-do 13120, Korea. E-Mail: jjahn@gachon.ac.kr

I. 서 론

입양은 혈연관계를 넘어 가족 형성의 한 방식으로, 아동에게 영구적으로 안정적 가정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아동복지 실천의 핵심적인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25년 7월부터 전면 개정된「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입양절차는 국가책임 하의 공적 체계로 완비되었으며, 입양가족에 대한 입양전후 관리 및 서비스 지원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아동 중심 입양 실천이 강조되면서 입양부모 역할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어 입양부모 적격성을 엄격히 평가하고 예비입양부모교육이 제공되고 있다(아동권리보장원, 2025). 아동의 친권을 이양받은 합법적 입양부모는 양육부모로 미성년자인 아동 양육의 의무 책임자가 되며 입양아동의 성장발달을 위한 일차적인 환경 제공자로서, 입양부모의 양육태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진다.

주 양육자와 한 번 이상의 분리를 경험하는 입양아동은 생애 초기 발달의 방해를 받게 되고 새 부모와의 새로운 애착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다. Bowlby(1969)의 애착이론에 따르면, 초기 애착 관계의 단절은 아동의 정서적·사회적 발달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애착대상과 분리된 입양아동은 새로운 입양부모와 안정적인 재애착(re-attachment) 형성이 필히 요구된다. 입양초기에 새 부모와 다시 형성하는 애착 관계의 질은 이후 입양아동의 적응과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이처럼 입양부모는 중단되거나 지체된 아동의 초기 발달의 회복을 돕는 발달환경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에 입양부모의 양육태도는 입양아동의 적응과 발달을 촉진시키거나 또는 방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입양가족은 생물학적 관계가 아닌, 법적, 사회적 관계로 형성되는 독특한 특성을 지니며, 일반가족과는 구별되는 심리사회적 과제에 직면한다(Brodzinsky, 1987). 특히 입양부모는 생물학적 부모가 아닌 것에 대한 불안감, 입양아동의 과거 경험에 대한 이해 부족, 입양 말하기에 관련된 고민 등으로 부모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특별한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Brodzinsky, 2011).

생물학적인 연결의 부재, 입양 당시 아동의 연령 등 입양 부모만이 갖는 특수한 조건들로 인해 입양부모의 양육태도는 비입양부모와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입양부모의 태도는 남의 아이를 키우는 '훌륭한 부모' 또는 '차별하는 부모' 등 양극단적인 사회적 편견에 종종 맞서게 되는데, 양부모에 대한 이러한 편견은 아동의 합법적인 양육자로서 입양부모의 역할

수행을 방해하게 된다. 입양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가 높을수록 아동 중심 입양의 성공률은 높아질 것이며, 이에 입양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실증적인 이해를 돕는 연구가 필요하다.

부모양육태도와 아동발달 간 관계를 다룬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광범위하게 축적되어 있다. Steinberg, Lamborn, Dornbusch 그리고 Darling(1992)의 종단연구는 부모의 권위있는 양육이 청소년의 학업성취, 심리사회적 발달, 문제행동 예방 등 전 영역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반면 권위주의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태도는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으며, 특히 체벌이나 심리적 통제는 아동의 우울, 불안, 공격성, 비행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Gershoff, 2002: Rothrauff, Cooney, & An, 2009). 국내 연구에서도 통제적이고 처벌적인 양육태도가 아동의 부적응과 관련이 있으며(이경님, 2004). 온정적이고 합리적인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사회성, 학업성취를 증진시킨다는 결과를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김미숙·윤혜미, 2006; 박영애·최영희, 2008).

입양부모의 양육태도를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발견은 보고되고 있다. Juffer, Bakermans-Kranenburg 그리고 van IJzendoorn(2005)의 메타분석에 따르면, 입양부모는 비입양부모에 비해 더 온정적이고 민감한 양육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것은 입양부모가 자녀 양육에 상대적으로 더 헌신적이고 동기화되어 있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Palacios와 Brodzinsky(2010)는 입양부모가 과잉보호나 과도한 허용을 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부 입양부모는 아동의 초기 박탈 경험을 보상하려는 마음에서 지나치게 허용적이 되어 아동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며, 한편 역으로 '완벽한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과도하게 통제적일 수 있다고도 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는 안재진, 권지성, 변미희, 그리고 최운선(2009)이 입양부모의 양육태도가 공개입양아동의 문제행동에 높은 수준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했고, 박미정(2009)은 입양모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자율성 존중이 입양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촉진하는 주요 변인임을 확인하면서, 입양모-자녀 간 일반 의사소통의 개방성이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배윤진, 김아름, 송신영, 그리고 권지성(2016)은 입양아동을 돌봄 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수행하여, 입양부모가 경험하는 양육의 어려움과 지원 욕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는데, 입양공개에 대한 부담,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대처 어려움 등이 입양부모의 양육태도를 형성하는 주요 요인임을 밝혔다. 실제 입양 현장에서도 입양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관심은 높은 편이나, 연구대상 표집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단일사례 혹은 소수 양육부모의 경험을 탐색한 질적 연구들이 일부 이루어졌다

(김외선, 2012; 임경미·양성은, 2011; 임은주·이근매, 2022; 정익중·권지성·민성혜·신혜원, 2010).

이처럼 선행연구에서는 입양부모 양육태도의 일반적 특성을 보고하거나, 양육태도를 입양아동의 적응, 문제행동, 입양공개에 대한 태도 등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주로 다루어왔으나, 입양부모 집단 내 양육태도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양육태도 유형을 경험적으로 분류하고, 아동 및 부모 특성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본 연구는 국내 입양부모 집단 내에서도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양육태도를 기존의 변수 중심 접근을 벗어나, 개인 중심(person-centered) 접근 방식인 잠재프로파일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입양부모들의 양육태도를 하위집단으로 분류함으로써 입양부모 집단 내 이질성을 체계적으로 포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영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입양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을 포함하며, 입양자녀의 연령을 중요한 아동 특성 변수로 고려하여 양육태도 유형 간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잠재프로파일 분석은 양육태도의 여러 차원을 동시에 고려하여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부모들을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제 양육 현장에서 나타나는 복합적인 양육태도 패턴을 보다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Vermunt, J. K., & Magidson, J, 2002).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입양부모의 양육태도의 각 유형의 특성을 파악하고, 양육태도의 하위유형에 따른 맞춤형 접근이 가능하도록 입양부모 대상 부모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의 차별화된 설계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입양부모의 양육태도는 어떠한 잠재프로파일 유형으로 분류되는가?

연구문제 2. 입양부모의 양육태도 유형별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입양부모의 인구학적 특성 및 입양 특성에 따라 양육태도 유형에 차이가 있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부모 양육태도

부모 양육태도는 다양하게 정의되어왔다. 초기 양육태도 연구를 주도한 Schaefer(1959)는 양육태도를 부모가 자녀에게 나타내는 외현적, 내재적 행동 경향성으로 보았으며, 이는 자녀의 성격 및 행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태도 및 행동을 포괄한다고 하였다. 이는 양육태도를 주로 관찰 가능한 행동적 차원에서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Fishbein과 Ajzen(1975)은 양육태도를 심리적 차원으로 확장한다. 그들은 양육태도를 양육상황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부모의 신념, 감정, 행동 의도의 복합체로 정의하여 행동 이면에 있는 인지적, 정서적 요소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발전시켰다. Darling과 Steinberg(1993)는 양육태도를 보다 관계적인 차원에서 정의하였다. 양육태도는 자녀를 통제하고 사회화하려는 부모의 태도와 행동의 집합이자 자녀에게 전달되는 정서적 분위기로 규정되었다.

부모 양육태도의 유형론적 연구는 Schaefer(1959)의 선구적 연구로부터 본격화되었다. Schaefer는 양육태도를 온정-적대(warmth-hostility)와 자율-통제(autonomy-control)라는 두 개의 독립적 차원으로 구조화함으로써, 단일 차원의 분류를 넘어서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2차원 구조 모델은 양육태도가 서로 독립적인 여러 차원의 조합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보여주었으며, 이후 양육태도 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의 문화적 맥락을 반영하여 양육태도를 보다 정교하게 측정하고자 하였다. 오성심·이종승(1982)이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의 삼차원 구조를 제시하였으며, 이후 연구에서는 지지, 합리적 설명, 성취압력, 간섭, 처벌, 감독, 과잉기대, 비일관성 등 보다 세분화된 하위차원으로 나누어져 측정되고 있다(임호찬, 2008)

Baumrind(1971)는 Schaefer의 접근을 기반으로, 현재까지도 양육태도 연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양육태도의 유형론을 정립하였다. Baumrind는 양육태도를 반응성(responsiveness)과 요구성(demandingness)이라는 두 차원 조합으로 재개념화하여, 권위적(authoritative), 권위주의적(authoritarian), 허용적(permissive), 방임적(neglectful) 양육이라는 네 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유형 분류는 양육태도의 복합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분석틀로 활용된다.

첫째 유형은 발달적으로 가장 적응적인 유형으로 반응성과 요구성이 모두 높은 '권위적 양육(authoritative parenting)'이다. 권위적 부모는 자녀에게 따뜻하고 지지적이면서도 명확한 기준과 한계를 제시하는 균형 잡힌 접근을 취한다. 이들은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고 규칙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명하며, 자녀의 자율성을 격려하면서도 발달에 적절한 수준의 감독을 한다. 이러한 양육은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 사회적 유능성, 학업성취를 가장 효과적으로 촉진시키는 것으로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Maccoby & Martin, 1983). 둘째 유형은 요구성은 높으나 반응성이 낮은 '권위주의적 양육(authoritarian parenting)'으로, 통제는 강하되 온정이 결여된 특징을 보인다. 권위주의적 부모는 엄격한 규칙과 무조건적 복종을 강조하며, 자녀의 의견이나 정서적 욕구를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 이들은 처벌 중심의 훈육을 사용하고 일방적인 통제를 가하며, 자녀와의 정서적 교류가 부족하다. 이러한 양육방식은 아동의 불안 수준 증가, 낮은 자존감, 사회적 미성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aumrind, 1991). 셋째 유형은 권위주의적 양육과는 정반대로, '허용적 양육(permissive parenting)'으로 반응성은 높으나 요구성이 낮아 온정은 제공하되, 구조가 결여된 형태를 띤다. 허용적 부모는 자녀에게 온정적이고 수용적이지만 명확한 기준이나 행동 한계를 설정하지 못하며, 자녀의 요구를 대부분 들어주나 규칙을 거의 만들지 않는다. 자기통제나 성숙한 행동을 요구하지 않는 이러한 양육태도는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 부족, 충동성 증가, 낮은 성취동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Lamborn, Mounts, Steinberg, & Dornbusch, 1991). 넷째 유형은, 반응성과 요구성이 모두 낮은 '무관심한 양육(uninvolved parenting)'으로, 네 가지 유형 중 가장 문제가 많다. 무관심한 부모는 자녀 양육에 심리적으로나 행동적으로 소극적이며 정서적 거리가 멀다. 이들은 자녀에게 최소한의 양육만 제공하고, 자녀의 신체적·정서적 욕구에 민감하지 않으며, 행동에 대한 감독도 소홀하다. 이러한 방임적 양육태도는 네 가지 유형 중 아동의 전반적 발달에 가장 심각하고 광범위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Maccoby & Martin, 1983).

Baumrind가 제시한 양육유형 이론은 다양한 문화권과 발달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검증되어왔으며, 전반적으로 권위적 양육이 가장 바람직한 발달적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고되어 왔다(Sorkhabi, 2005). 그러나 문화적 맥락에 따라 양육유형의 의미와 효과는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통제적 양육이 서구 문화권에서 보고되는 것처럼 일관되게 부정적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Chao, 1994). Brodzinsky와 Pinderhughes(2002)는 입양가정에서도 온정성, 민감성, 적절한 통제로 구성된 양육의 질이 아동의 긍정적 적응을 예측함을 확인함으로써, Baumrind의 양육유형 이론이 입양부모의 양

육태도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이론적 틀로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입양부모 역할의 특수성과 양육태도

입양부모의 양육태도가 갖는 의미는 출산부모의 양육과 몇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입양아동은 대체로 생애 초기 단계에서 생물학적 부모 또는 초기 양육자와의 애착 관계 단절이라는 외상적 경험을 하며, 이로 인해 형성된 불안정한 내적 작동 모델을 지닌 상태에서 입양가족에 편입되는 경우가 많다(Dozier, Stovall, Albus, & Bates, 2001). 비록 생후 6개월 이전에 분리·배치된 경우에는 이후 적응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으나, 입양부모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단순히 아동의 일반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선다. 즉, 입양부모는 입양 이전과 입양과정에서의 경험으로 손상된 아동의 애착 체계를 회복시키는 동시에 중단되거나 지체된 발달 영역이 재개될 수 있도록 돕는 치유적 양육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양부모는 독특한 어려움에 직면한다. 무엇보다 입양부모는 아동과의 생물학적 연결의 부재로 인한 심리적 부담을 경험할 수 있다. '진짜 부모인가'라는 사회적 인식과 개인적 의문은 부모 자신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이는 양육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Kirk, 1964). 또한 오늘날은 과거의 비밀입양과 달리, 입양 사실을 부모가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으며, 입양아동의 알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양 사실을 언제, 어떻게 자녀에게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입양 말하기(talking about adoption)'는 입양부모에게 요구되는 고유한 과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Brodzinsky, 2011). 입양정체성은 출생가족과 입양가족이라는 두 가족의 존재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의미를 형성해가는 과정으로, 개인의 심리적 특성뿐 아니라 가족 내 상호작용과 사회적 맥락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Grotevant, Dunbar, Kohler, & Esau, 2000). 따라서 입양부모는 자녀가 성장 과정에서 제기하는 출생가족에 대한 질문에 개방적으로 응답하고, 입양과 관련된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Dunbar & Grotevant, 2004). 이외에도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에 대한 대처, 아동의 과거 외상 경험으로 인한 행동문제 대처 등으로 입양부모는 추가적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특히, 입양부모는 입양아동의 출생 및 초기 발달사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거나 전혀 없는 경우가 많은데(Colaner & Kranstuber, 2010), 이로 인해 입양부모는 아동의 행동을 이해하고

적절히 반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부모역할에 대한 심리적 압박은 입양부모로 하여금 과잉보상 심리를 경험하게 할 수 있다. 입양자녀에게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지나치게 허용적이 되거나, 반대로 '좋은 부모'임을 증명하려는 압박감에서 과도하게 통제적인 양육태도를 갖게 될 수 있다(Palacios & Brodzinsky, 2010). 그러나 이러한 양육태도는 입양아동이 필요로 하는 안정적이고 일관된 양육 환경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으며, 특히 입양 초기단계에서 중요한 재애착 형성과정을 방해할 수 있다.

애착이론에 따르면 양육자의 민감하고 반응적인 태도는 아동의 안정 애착 형성에 필수적이며, 이는 이후 정서 조절 능력과 사회적 유능성의 기초가 된다(Bowlby, 1969). Ainsworth, Blehar, Waters 그리고 Wall(1978)의 민감성 개념 역시 양육자가 아동의 신호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일관되게 반응하는 능력이 안정 애착 형성의 중요한 조건임을 강조한다. 입양아동의 경우 초기 박탈 경험이나 불안정한 양육 환경으로 인해 애착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나, 입양부모가 정서적으로 이용가능한(emotionally available) 존재로, 입양아동의 특수한 욕구를 이해하고, 아동의 신호에 일관되게 민감한 반응으로 버텨준다면 입양 초기부터 새로운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할 가능성은 높아진다(Hodges & Tizard, 1989). 실제로 Dozier 등(2001)은 입양부모의 민감성과 반응성이 자녀와의 애착형성에 있어 핵심적인 요인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van den Dries, Juffer, van IJzendoorn 그리고 Bakermans-Kranenburg (2009)는 메타분석을 통해, 대부분의 입양아동이 입양부모와 애착을 형성할 수 있으나, 나이가 들어 입양된 아동의 경우 비입양아동에 비해 불안정 애착의 비율이 높고, 특히 혼란(disorganized) 애착의 비율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입양부모가 일반적인 양육 상황보다 더 높은 수준의 민감성과 전문적 양육 역량을 요구받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양육태도는 단일 요인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다. Belsky(1984)는 양육태도를 결정하는 요인을 부모의 개인적 심리자원(성격, 발달사, 정신건강), 자녀의 특성(기질, 행동), 그리고 사회적 맥락(부부관계, 사회적 지지, 직업 스트레스)이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체계화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입양가정의 양육태도를 이해하는데 특히 유용하다. 입양부모의 불임 경험이나 양육효능감과 같은 부모 개인 요인, 입양아동의 초기 결핍 경험과 행동 특성 같은 자녀 요인, 그리고 입양지원 서비스나 사회적 지지 같은 환경 요인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입양부모의 양육태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Brodzinsky & Pinderhughes, 2002).

최근 연구에서는 입양부모의 양육태도가 부모의 심리적 자원 및 양육과정에서의 정서적

인식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점이 강조되면서 입양 이후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부모의 심리적 안녕을 증진하기 위한 개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애착이론에 기반한 개입이 위탁 및 입양 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 애착이론에 기반한 개입은 입양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을 증가시키고, 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입양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Dalgaard, Filges, Viinholt, & Pontoppidan, 2022). 또한 마음챙김 양육 기반 개입이 부모의 긍정적 양육을 증진시키는데 유망한 접근으로 입양부모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Chorão, Canavarro, & Pires, 2024), 실제로 입양부모의 마음챙김, 심리적 유연성, 자기연민과 같은 개인적 심리자원이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났으며, 부모의 정서적 조절 능력이 입양가정의 양육경험을 보호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Chorão, Canavarro, & Pires, 2022). 또한 입양 전 학대나 초기 결핍 경험을 가진 아동일수록 입양 이후 정서 및 행동 문제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나, 입양부모의 마음챙김 양육이 특히 8세 이하 아동에게서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odrigues, Rato, Canavarro, & Pires, 2024), 입양부모의 회피/불안 애착 성향은 자녀의 정서 및 행동 문제 증가와 관련되는데, 이 관계는 낮은 자기연민과 마음챙김 양육의 어려움을 통해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ato, Serra, Gonçalves, Canavarro, & Pires, 2025).

이처럼 입양부모는 고유한 역할 긴장과 복합적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동시에, 아동의 애착 회복과 정체성 발달을 지원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그 변화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양육태도는 고정된 특성이 아니라 인식과 개입을 통해 변화할 수 있는 영역인 만큼, 입양부모 집단 내에서 나타나는 양육태도의 이질적 패턴을 경험적으로 파악하고, 각 유형의 특성에 맞춘 개입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연구참여자는 A시에 소재한 한국입양가족상담센터에서 운영하는 입양사후서비스 프로그램인 '문지방상담'에 참여를 신청한 입양부모들로 전국에 거주하는 입양자녀를 양육 중인 입양부모들이다. 연구 대상으로 부모들로만 설정하여 표본을 구성하였고 입양아동의 연령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았으며 만 19세가 넘은 성인기 자녀의 입양부모는 표본에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입양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법원의 허가를 기다리며 입양 전 임시 양육을 하고 있는 예비 입양부모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문지방상담사(입양가족심리상담사의 별칭)가 입양사후서비스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한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사정상담 과정에서 실시한 부모양육태도 검사 및 설문조사 결과지를 활용하였다. 부모양육태도 검사는 입양가족 기능평가를 위한 검사 도구의 하나로, 입양부와 입양모가 각각 입양자녀에 대한 자신의 양육태도를 떠올리며 응답하도록 구성되었다.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부모가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분석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안내하였다. 입양부와 입양모는 동일 가정에 속하더라도 양육 경험과 태도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부모 수준에서 양육태도의 이질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동일 가정에서 산출된 두 응답은 독립적 관측치가 아니므로, 본 연구에서는 가정 단위를 클러스터로 지정하여 강건(robust) 표준오차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비독립성을 통제하였다.

분석자료는 문지방상담 서비스가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었던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가운데 연구 목적에 필요한 주요 변인이 누락되었거나 동일 응답자가 중복 포함된 자료는 제외하고, 응답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된 자료만을 선별하여 최종적으로 총 216건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자료가 입양제도가 공적 체계로 전환된 시점인 2025년 이전에 수집된 자료라는 점에서, 현재의 입양환경을 온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입양부모의 양육태도와 가족 특성은 단기간에 급격히 변화하기보다는 비교적 안정적인 가족 환경을 반영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본 자료는 국내 입양부모 양육태도의 기본적 특성과 유형을 탐색하는 데 여전히

유의미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입양제도 개편 이전 국내 입양부모 양육태도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기록했다는 점에서, 입양제도가 개편된 이후 자료와의 비교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

2. 연구도구

1) 부모양육태도

입양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별도의 표준화된 척도가 현재까지 개발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양육태도 연구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부모용 양육태도 척도를 연구 도구로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허묘연(2004)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한 부모양육태도 유형별 척도를 임호찬(2008)이 수정·보완하여 영아에서 고등학생까지 자녀를 둔 부모들이 직접 체크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부모양육태도검사(Parenting Attitude Test: PAT)지를 사용하였다.

전체 요인은 8개이고 총 문항은 4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하위요인 8가지는 지지표현, 합리적 설명, 성취압력, 간섭, 처벌, 감독, 과잉기대, 비일관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적 일관성은 과잉기대 α=.57부터 합리적 설명 α=.85까지 보고되었다(임호찬, 2008). 응답범위는 '1=전혀 아니다'에서 '5=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에서 과잉, 부족의 기준점은 각 하위영역에서 제시한 이상적인 백분위 점수를 기준으로 상, 하 10% 이내는 이상적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상, 하 10%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과잉 또는 부족으로 유의미하게 해석한다. 부모양육태도 검사의 하위 척도는 다음 <표 1>에 제시한다.

<표 l> 부모양육태도 검사(Parenting Attitude Test: PAT)의 하위 척도

구분	내용	문항수	문항번호	이상적 범위
지지표현	자녀에게 애정을 많이 보이는 정도를 평가	9	8, 12, 20, 24, 29, 31, 34, 38, 41	75% 전·후
합리적 설명	자녀의 잘못을 꾸중할 때 자녀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게끔 분명한 이유와 합리적인 규칙을 토대로 설명하는 노력의 정도를 평가	6	1, 9, 13, 21, 37, 40	75% 전·후

성취압력	사회적 성공을 강하게 요구하는 정도를 평가	5	2, 10, 14, 25, 30	60% 전·후
간섭	자녀의 사생활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도를 평가	6	3, 11, 15, 22, 26, 39	50% 전·후
처벌	주로 신체적 처벌이나 심리적 위협을 가하는 정도를 평가	4	4, 16, 27, 36	40% 전·후
감독	자녀의 일상 스케줄을 파악하고 있는 정도를 평가	7	5, 17, 23, 38, 32, 42, 43	40% 전·후
과잉기대	암묵적인 기대 정도를 평가	3	6, 18, 33	30% 전·후
비일관성	자녀의 행동에 대한 꾸지람의 기준이 비일관적인 정도를 평가	3	7, 19, 35	20% 전·후
계		43		

2) 입양아동 및 부모특성

입양아동 및 부모의 특성에 따라 입양부모의 양육태도 유형 분포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입양아동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입양 당시 연령을 포함하였으며, 입양부모의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친생자녀 유무, 입양 전 결혼기간, 입양 후 부모역할 기간 등에 따라 양육태도의 분포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아동의 성별은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고, 아동 연령과 입양당시 연령은 영아기(1세 이하), 유아기(2-6세), 아동기(7-12세), 청소년기(13-19세)로 범주를 구분하였다. 부모 성별도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였고, 부모 연령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출산경험은 있음, 없음으로 구분하고, 입양 당시 자녀 유무는 없음, 1-2명, 3명 이상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입양 전 결혼기간은 5년 이하, 6년-10년, 11년-15년, 16년-20년, 20년 이상으로 구분하였고, 입양 후 부모역할기간은, 1년 이하, 1년-3년, 4년-5년, 6년-10년, 11년-20년의 5개 범주로 구분하였다. 자료분석 시에는 필요에 따라 변수의 범주를 통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3. 자료분석방법

먼저 연구대상자의 특성 및 영역별 양육태도에 대한 기술분석을 실시한 후, 잠재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을 적용하여 입양부모들의 양육태도가 어떠한 유형으로 나타나는지 탐색하였다. 잠재프로파일 분석은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보다는 개인의 특성 조합에 초점을 두는 개인중심 접근방법(person-centered approach)으로, 혼합모형(Mixture Modeling)에 속하는 분석기법이다. 혼합모형은 모집단이 단일하고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라, 서로 구별되는 여러 하위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이 가운데 잠재집단분석은 개인의 응답패턴과 그 특성을 확률적으로 추정하여, 유사한 특성을 지닌 개인들을 동질적인 하위집단, 즉 잠재계층 또는 잠재유형으로 분류하는 방법이다(Collins & Lanza, 2010). 잠재프로파일 분석은 잠재집단분석 중에서도 관측변수가 연속형일 때 활용된다.

잠재집단의 수는 통계적 적합도 지표뿐 아니라 이론적 타당성 및 결과의 해석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한다(Hooper, Feng, Christian, & Slesnick, 2015). 이를 위해 잠재집단의 수를 단계적으로 증가시키면서, 집단 수에 따른 정보준거지수, 분류의 정확성, 그리고 모형 간 비교 검증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오현정, 장유나, 홍세희, 2020). 정보준거지수로는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a),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a), SABIC(Sample-size Adjusted BIC)를 활용하였다. 이 지표들은 서로 다른 잠재집단 수를 가진 모형들 간의 상대적인 적합도를 비교하는 데 사용되며, 값이 낮을수록 모형의 적합도가 우수함을 의미한다(Hooper et al., 2015). 분류의 정확성은 엔트로피(Entropy) 값을 통해 확인하였는데, 엔트로피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값이 1에 가까울수록 개인이 잠재집단에 보다 명확하게 분류되었음을 의미한다. 모형 간 적합도 비교는 LMR-LRT(Lo-Mendell-Rubin Likelihood Ratio Test)와 VLMR-LRT (Vuong-Lo-Mendell-Rubin Likelihood Ratio Test)를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이 값들은 k개의 잠재집단을 포함한 모형과 k-1개의 잠재집단을 포함한 모형을 통계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해준다(Asparouhov & Muthén, 2012; Nylund, Asparouhov, & Muthén, 2007). LMR-LRT와 VLMR-LRT의 p값이 유의한 경우, k개의 잠재집단을 가정한 모형이 k-1개 집단 모형보다 더 적합하다고 해석한다(Nylund et al., 2007). 모형비교검증에 많이 사용되는 BLRT(Parametric Bootstrapped Likelihood Ratio Test)값은 복합표본 설계(TYPE=COMPLEX)을 적용하여 분석하는 경우 산출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입양부와 입양모의 양육태도가 동일 가정 내에서도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모 수준의 응답을 분석 단위로 포함하였으며, 다만 동일 가정에서 산출된 복수의 응답은 통계적으로 독립적이지 않으므로, 가구 ID를 클러스터로 지정하고 TYPE=COMPLEX 옵션과 MLR 추정치를 적용함으로써 강건 표준오차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입양아동 및 부모특성에 따라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도출된 양육태도 유형

분포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카이제곱 검증을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입양아동 및 부모 특성에 따라 영역별 양육태도에 평균 차이가 나타나는지 검증하기 위해 집단 수에 따라 독립표본 t검증 또는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이 때 분석의 탐색적 성격을 고려하여 유의수준 .10에서 나타난 한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도 함께 제시하였다. 잠재프로파일 분석은 Mplus 8.0을 사용하였으며, 기술통계분석과 카이제곱 검증, 집단 간 차이 검증은 SPSS 20.0을 사용하였다.

Ⅳ. 연구결과

1. 기술통계분석

1) 입양부모의 양육태도

아래 <표 2>는 입양부모 양육태도의 영역별 기술통계를 제시한 것이다. 영역별 평균을 살펴보면, '지지표현'과 '간섭', '처벌'은 제시된 이상적 범위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합리적 설명'과 '과잉기대'의 경우, 평균값이 이상적 범위에 속하지는 않으나 이상적 범위의 경계값과 2점 이내의 차이를 보여 비교적 근접한 수준이었다. 반면, '성취압력'과 '감독', '비일관성' 영역의 평균은 이상적 범위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벗어났는데, 특히 '성취압력'의 경우 평균이 이상적 범위보다 현저히 낮아, 전반적으로 입양부모가 자녀에게 과도한 성취를 요구하는 경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감독'은 이상적 범위의 상한보다 약 8.5점 높게 나타나, 입양부모가 자녀에 대한 관리감독을 비교적 엄격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비일관성'의 평균은 이상적 범위를 약 15점 가량 상회하고 있어, 일부 입양부모의 양육태도가 충분히 안정적이지 못하고 양육방식의 일관성이 낮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편, 이러한 영역별 평균은 입양부모 전체의 전반적인 경향을 나타내는 지표이지만, 각 영역에서 최소값과 최대값의 범위가 넓고 표준편차도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입양부모 집단 내에서도 양육태도가 개인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하며, 평균 중심의 분석만으로는 이러한 이질성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보여준다. 따라서 입양부모 집단 내의 다양한 양육태도 양상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인중심 접근의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입양부모의 양육태도 특성

하위영역	전체(n=216)				이상적 범위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지지표현	2	100	66.28	29.39	65-85
합리적 설명	5	98	63.19	26.60	65-85
성취압력	2	98	30.78	25.40	50-70
간섭	2	100	51.84	28.17	50-70
처벌	2	98	47.16	26.46	30-50
감독	2	100	58.46	27.85	30-50
과잉기대	5	98	41.81	24.73	20-40
비일관성	2	95	44.33	23.28	10-30

2) 입양아동 및 부모 특성

연구대상의 특성은 아래 <표 3>과 같다. 아동의 성별은 여아가 63.9%로 남아(36.1%)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아동 연령은 유아기(2세-6세)가 49.1%로 가장 많았고, 아동기(7세-12세)가 38.4%, 청소년기(13세-19세)가 12.0%로 나타났다. 입양 당시 연령은 영아기(1세 이하)가 81.0%로 대다수를 차지하여, 국내 입양이 주로 영아기에 이루어지는 특성을 반영한다.

부모 특성을 살펴보면, 총 157가정의 216명의 입양부모가 참여하였으며, 부모가 모두 참여한 가정이 59가정, 아버지만 참여한 가정이 7가정, 어머니만 참여한 가정이 91가정이었다. 따라서 응답자의 성별은 여성이 150명(69.4%)으로 남성(66명, 30.6%)보다 많았다.

부모 연령은 40대가 56.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50대가 37.0%로 뒤를 이었다. 30대와 60대는 상대적으로 소수였다. 출산 경험은 '없음'과 '있음'이 각각 50.9%, 49.1%로 유사한 비율이었다. 입양 당시 자녀 수는 자녀가 없었던 경우가 50.5%로 가장 많았으며, 1-2명 또는 3명 이상을 둔 가정도 각각 25% 내외로 분포하였다. 입양 전 결혼기간은 6년-10년이 38.0%로 가장 많았고, 입양 후 부모 역할 수행 기간은 6년-10년이 35.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비교적 장기간 입양 양육 경험을 가진 부모가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표 3> 입양아동 및 부모 특성 (n=216)

구분			빈도	백분율
아동[1] 특성	아동 성별	남자	78	36.1
		여자	138	63.9
	아동 연령	영아기(1세 이하)	1	0.5
		유아기(2세-6세)	106	49.1
		아동기(7세-12세)	83	38.4
		청소년기(13세-19세)	26	12.0
	입양 당시 아동 연령	영아기(1세 이하)	175	81.0
		유아기(2세-6세)	40	18.5
		아동기(7세-12세)	1	0.5
부모 특성	부모 성별	남자	66	30.6
		여자	150	69.4
	부모 연령	30대	6	2.8
		40대	122	56.5
		50대	80	37.0
		60대 이상	8	3.7
	출산 경험	없음	110	50.9
		있음	106	49.1
	입양 당시 자녀 수	없음	109	50.5
		1-2명	54	25.0
		3명 이상	53	24.5
	입양 전 결혼기간	5년 이하	26	12.0
		6년-10년	82	38.0
		11년-15년	62	28.7
		16년-20년	37	17.1
		20년 이상	9	4.2
	입양 후 부모역할 기간	1년 이하	23	10.6
		1년-3년	48	22.2
		4년-5년	38	17.6
		6년-10년	76	35.2
		11년-20년	31	14.4

1) 입양아동 수는 부모응답을 기준으로 산출된 수치로, 동일 가정에서 부모 모두 응답한 경우 동일 자녀에 대한 중복 응답일 가능성이 있으며, 입양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서로 다른 자녀에 대한 응답이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자료의 한계로 인해 이를 구분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동일 가정 내 응답의 비독립성을 통제하기 위해 가정 단위로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강건 표준오차를 적용하였다.

2. 잠재프로파일 분석결과

입양부모 양육태도의 하위유형을 탐색하기 위하여 잠재프로파일 분석(LPA)을 실시하였다. 입양부모 양육태도의 잠재프로파일 수를 결정하기 위해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2개부터 하나씩 증가시키며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모형의 표준오차와 유의확률은 동일 가정 내 응답 간 비독립성을 고려하여 강건 표준오차를 산출하였다[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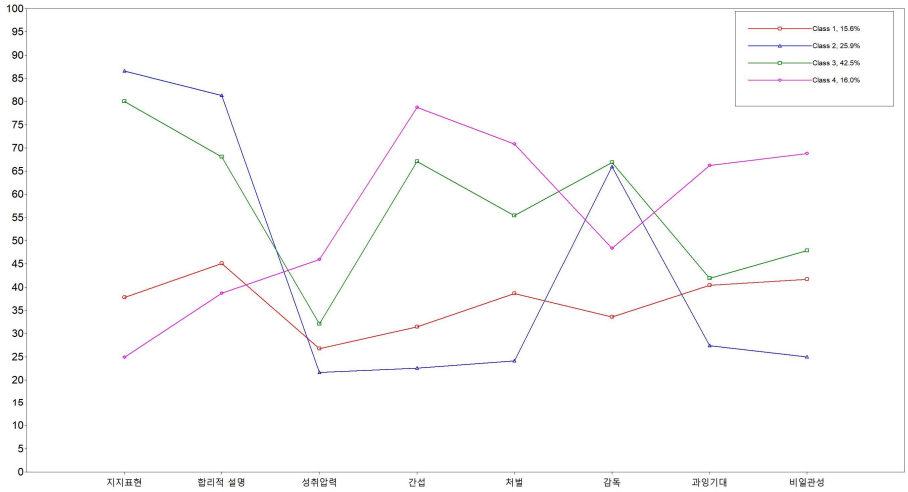
분석결과, 잠재프로파일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정보지수의 값(AIC, BIC, SABIC)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Entropy 값은 3개 프로파일 모형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 후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모형 비교 검증 값인 VLMR-LRT와 LMR-LRT값은 3개 모형에서 4개 모형으로 전환되는 시점부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4개 잠재프로파일 모형은 유의수준 .10수준에서 한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이러한 통계적 결과와 함께, 양육태도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Baumrind 이론과의 정합성 및 각 프로파일의 해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4개로 최종결정하였다. 4개 프로파일의 각 집단별 분류율도 모두 15% 이상으로 의미있는 분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입양부모 양육태도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

구분	분류기준						분류율(%)				
	AIC	BIC	SABIC	VLMR-LRT	LMR-LRT	Entropy	1	2	3	4	5
2	16042.037	16126.419	16047.198	p=.016	p=.018	0.857	27.1	72.9			
3	15964.941	16079.700	15971.960	p=.025	p=.027	0.790	25.7	49.0	25.3		
4	15876.287	16021.424	15885.164	p=.070	p=.073	0.854	15.6	25.9	42.5	16.0	
5	15847.565	16023.080	15858.300	p=.261	p=.261	0.844	16.3	25.0	10.5	15.4	32.9

4개 프로파일 모형을 바탕으로 각 프로파일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 잠재프로파일의 영역별 양육태도 수준의 패턴을 아래 [그림 1]에 그래프로 제시하였다.

2) 민감도 검증(sensitivity test)을 위해 응답 간 독립성을 가정한 모형을 추가로 분석한 결과, 주요 결과가 본 분석 결과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동일 가정 내 응답 간 비독립성이 분석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림 1] 입양부모의 양육태도 잠재프로파일

각 집단의 하위영역별 상대적 수준을 비교하면 먼저 1집단의 경우 전체 입양부모의 15.6%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하위영역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이는 집단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에 대한 정서적 지지와 통제가 모두 낮은 양육 형태로, Baumrind의 무관심한 부모 유형에 해당하는 특성을 보였다. 두 번째 집단(25.9%)은 지지표현과 합리적 설명, 감독 영역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반면, 성취압력, 간섭, 처벌, 과잉기대, 비일관성은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는 자녀에 대한 정서적 지지와 설명적 접근은 높은 수준이나 통제적이거나 강압적인 양육은 최소화하는 양육태도로 Baumrind가 구분한 허용적 부모 유형의 특성과 부합한다. 세 번째 집단은 가장 많은 입양부모가 속한 유형(42.5%)으로 거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여, 지지적이면서도 일관된 통제를 함께 수행하는 양육 특성을 나타냈다. 이러한 양상은 Baumrind가 제시한 권위있는 부모 유형의 특징과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집단은 지지표현과 합리적 설명 영역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 반면, 성취압력, 간섭, 처벌, 과잉기대, 비일관성 영역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는 정서적 지지는 제한적인 반면 통제와 요구수준이 높은 양육 양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Baumrind의 권위주의적 부모 유형에 해당하는 특성을 보였다. 이 집단은 전체 연구대상의 16.0%를 차지하였다.

각 집단의 영역별 양육태도의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아래 <표 5>와 같다. 본 연구의 잠재프로파일 분석에서는 집단 간 분산을 동일하게 제약한 분산고정 모형을 적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 잠재집단의 표준편차는 동일하게 추정되었다.

<표 5> 각 잠재유형의 양육태도 영역별 수준

하위 영역	잠재유형별 평균				표준편차 (분산고정 모형)
	1집단	2집단	3집단	4집단	
지지표현	37.74	86.57	80.03	24.91	16.48
합리적 설명	45.06	81.30	68.07	38.67	21.49
성취압력	26.76	21.65	32.09	45.97	24.08
간섭	31.42	22.56	67.08	78.70	16.99
처벌	38.62	24.13	55.43	70.81	20.74
감독	33.57	65.92	66.88	48.38	24.78
과잉기대	40.37	27.41	41.91	66.20	21.43
비일관성	41.67	24.97	47.88	68.81	18.43

네 개의 잠재유형은 양육태도 각 영역에서의 상대적 수준을 기준으로 무관심형(1집단), 허용형(2집단), 권위형(3집단), 권위주의형(4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이는 Baumrind의 양육유형 이론과 개념적으로 부합한다. 다만 가장 바람직한 양육태도로 여겨지는 권위형에 속한 집단이더라도 모든 영역에서 척도의 바람직한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본 연구에서의 유형 명명은 연구대상 내에서 관찰된 영역별 상대적 위치에 근거한 것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입양아동 및 부모 특성에 따른 양육태도의 차이

1) 입양아동 및 부모 특성에 따른 양육태도 유형 분포의 차이

입양아동 및 부모 특성에 따라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도출된 4개 양육태도 유형의 분포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증을 실시하였다.

입양아동의 세 가지 특성(성별, 연령, 입양당시 연령)과 입양부모의 여섯 가지 특성(성별, 연령, 출산 경험, 입양 당시 자녀 수, 입양 전 결혼기간, 입양 후 부모역할 기간)에 따른 양육태도 유형 분포를 교차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입양아동의 특성에 따른 유의미한 분포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입양부모 특성 중 출산 경험과 입양 당시 자녀 수, 입양 전 결혼기간에 따라 양육태도 유형 분포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출산 경험이 없는 입양부모의 경우 허용형(29.1%)과 권위주의형(20.0%)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출산경험이 있는 입양부모는 무관심형(23.6%)의 비율이 출산경험이 없는 입양부모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입양 당시 자녀 수에 따른 분포 차이에서도 유사하게 확인되었는데, 입양 당시 자녀 수가 많을수록 무관심형의 비율은 크게 증가한 반면, 허용형의 비율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입양자녀 외에 다른 자녀가 존재하는 가정에서는 부모의 관심이 분산될 가능성, 또는 다자녀 양육 상황에서 통제적인 양육 전략이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입양 전 결혼기간에 따라서는 유의수준 .10에서 한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입양 전 결혼기간이 긴 양부모일수록 무관심형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결혼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에는 권위형과 권위주의형의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결혼 초기 또는 중기의 부모가 양육 역할 수행 과정에서 보다 통제적인 양육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아래 <표 6>은 부모 특성에 따른 양육태도 유형 분포 차이가 유의미한 분석 결과만을 제시하였다.

<표 6> 부모 특성에 따른 양육태도 유형 분포 차이

부모특성		양육태도 유형				X^2 (df)
		무관심형	허용형	권위형	권위주의형	
출산경험	없음	9(8.2%)	32(29.1%)	46(41.8%)	23(20.0%)	10.371(3)*
	있음	23(21.7%)	25(23.6%)	46(43.4%)	12(11.3%)	
입양당시 자녀 수	없음	8(7.3%)	33(30.3%)	46(42.2%)	22(20.2%)	20.807(6)**
	1-2명	7(13.0%)	16(29.6%)	25(46.3%)	6(11.1%)	
	3명 이상	17(32.1%)	8(15.1%)	21(39.6%)	7(13.2%)	
입양 전 결혼기간	10년 이하	10(9.3%)	26(24.1%)	51(47.2%)	21(19.4%)	7.426(3)+
	11년 이상	22(20.4%)	31(28.7%)	41(38.0%)	14(13.0%)	

+ p<.10, * p<.05, ** p<.01

2) 입양아동 및 부모 특성에 따른 양육태도 영역별 평균 차이

입양아동 및 부모 특성에 따라 양육태도 각 영역에서 평균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집단 간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입양아동 성별에 따라서는 모든 양육태도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아동 연령을 세 집단(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으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 과잉기대 영역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지지표현, 처벌, 감독 영역에서는 한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입양 당시 연령이 영아기(12개월 이하)인지 비영아기(12개월 초과)인지에 따라 처벌 영역에서 한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 차이가 나타났다.

아동의 연령에 따른 양육태도 차이를 살펴보면, 지지표현 영역의 경우 사후검증 결과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처벌 영역에서는 영유아기 자녀의 부모가 청소년기 자녀 부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독 영역에서도 영유아기와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가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자녀가 어릴수록 감독하고 통제하는 양육태도를 갖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과잉기대의 경우 영유아 및 아동기 자녀에 비해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가 더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 이는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학업성취 등과 관련된 기대가 증가하는 양상을 반영한 결과로 여겨진다. 입양 당시 연령에 따른 차이는 영아기 아동을 입양한 부모에 비해 비영아기 아동을 입양한 부모가 보다 처벌적인 양육태도를 갖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입양 당시 연령이 높은 아동일수록 입양 전 양육 경험(양육자의 잦은 변경, 집단보호 등), 입양부모와의 애착형성 어려움 등으로 인해 문제행동 등 적응상 어려움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안재진 외, 2009; 최운선, 안재진, 변미희, 권지성, 2008; Jarrett, 2022)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보다 처벌적인 양육태도를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7> 아동 특성에 따른 양육태도 차이

아동연령	a)영유아기(n=107)		b)아동기(n=83)		c)청소년기(n=26)		F	Scheffe's
	M	SD	M	SD	M	SD		
지지표현	70.75	29.06	61.86	29.49	62.00	28.76	2.486+	-
처벌	50.27	26.22	46.18	27.08	37.50	23.68	2.565+	a>c
감독	60.51	26.37	59.64	29.04	46.23	27.88	2.924+	a, b>c
과잉기대	39.67	22.14	39.45	25.15	58.12	28.12	6.778**	a, b<c
입양당시 연령	영아기 입양(n=175)			비영아기 입양(n=41)			t	
	M		SD	M		SD		
처벌	45.53		26.02	54.15		27.52	-1.889+	

+ p<.10, ** p<.01

다음으로 부모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부모의 성별과 연령, 출산경험, 입양 전 결혼기간, 입양 당시 자녀수, 입양 후 부모역할기간에 따라 일부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표 8> 참조). 먼저 성별에 따른 차이는 합리적 설명과 성취압력 영역에서 나타났는데, 합리적 설명의 수준은 어머니가 더 높게 나타난 반면, 성취압력은 아버지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 부모의 성별에 따른 양육태도 차이를 보여주었다. 한편, 감독 영역에서는 한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감독의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부모 연령의 경우, 30대와 60대 응답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30-40대와 50-60대의 2개 범주로 통합하여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성취압력, 처벌, 과잉기대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지지표현 영역에서는 한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취압력과 과잉기대는 50-60대 부모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난 반면, 지지표현과 처벌은 30-40대 부모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 연령도 높은 경향이 있다는 점과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청소년기 자녀가 많은 50-60대 부모 집단에서는 학업성취 등에 대한 기대와 압력이 더 크게 나타난 반면, 비교적 어린 자녀를 둔 30-40대 부모 집단에서는 자녀에 대한 정서적 지지와 행동 통제를 병행하는 양육 경향이 두드러졌을 가능성이 있다.

<표 8> 부모 특성에 따른 양육태도 차이

부모 성별	아버지(n=66)		어머니(n=150)		t
	M	SD	M	SD	
합리적 설명	54.98	28.53	66.79	24.96	-3.064**
성취압력	36.92	27.87	28.07	23.83	2.244*
감독	53.48	28.33	60.65	27.44	-1.749+
부모 연령	30-40대(n=128)		50-60대(n=88)		t
	M	SD	M	SD	
지지표현	69.03	27.70	62.27	31.42	1.667+
성취압력	27.55	23.09	35.47	27.89	-2.194*
처벌	51.42	26.59	40.97	25.16	2.902**
과잉기대	37.84	23.65	47.57	25.25	-2.888**
출산 경험	없음(n=110)		있음(n=106)		t
	M	SD	M	SD	
성취압력	34.51	26.49	26.91	23.72	2.220*
감독	61.71	27.67	55.08	27.76	1.756+

입양 전 결혼기간	10년 이하(n=108)		11년 이상(n=108)		t
	M	SD	M	SD	
간섭	55.48	27.44	48.19	28.55	1.912+
처벌	50.81	26.00	43.52	26.54	2.038*
감독	63.14	26.40	53.78	28.59	2.500*
과잉기대	45.15	25.18	38.46	23.92	2.001*

입양 당시 자녀수	a)없음(n=109)		b)1-2명(n=54)		c)3명 이상(n=53)		F	Scheffe's
	M	SD	M	SD	M	SD		
감독	62.14	27.71	59.59	26.65	49.74	27.94	3.686*	a>c

입양 후 부모역할 기간	a)5년 이하(n=109)		b)6-10년(n=76)		c)11-20년(n=31)		F	Scheffe's
	M	SD	M	SD	M	SD		
성취압력	30.23	24.30	27.91	23.90	39.74	31.04	2.475+	b<c
처벌	51.00	26.24	45.83	26.46	36.94	24.96	3.645*	a>c
과잉기대	41.08	23.31	38.01	25.67	53.65	24.40	4.647*	a, b<c

+ p<.10, *<.05, ** p<.01

한편, 출산 경험이 없는 입양부모의 경우 성취압력과 감독 영역에서 출산 경험이 있는 부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출산 경험이 없는 입양부모의 경우 입양자녀가 첫 자녀인 경우가 많으므로, 자녀에 대한 성취 기대가 높고, 일상적 양육과정에서 자녀를 보다 면밀히 관리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입양 당시 자녀가 없는 부모의 경우, 자녀가 3명 이상인 부모보다 감독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입양 전 결혼기간을 10년 이하인 집단과 11년 이상인 집단으로 구분하여 집단 간 양육태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입양 전 결혼기간이 10년 이하인 집단에서 간섭과 처벌, 감독, 과잉기대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이들 부부가 비교적 이른 시점에 입양을 통해 부모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서 양육에 대한 집중도와 기대 수준이 높았을 가능성과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다. 즉, 자녀 양육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면서, 간섭, 감독, 처벌, 과잉기대 영역에서 높은 수준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입양 후 부모역할 기간은 5년 이하, 6-10년, 11년 이상으로 구분하여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였는데, 처벌과 과잉기대 영역에서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으며, 성취압력 영역에서 한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증 결과, 성취압력 영역에서 부모역할 기간이 11년 이상인 집단이 6-10년인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과잉기대 영역에서도 부모역할 기간이 11년 이상인 집단이 나머지 두 집단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자녀 연령과 관련된 것

으로 보이는데, 부모역할 기간이 긴 경우 자녀연령도 높아지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성취압력과 과잉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 처벌 영역에서는 부모역할 기간이 5년 이하인 집단이 11년 이상인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동 연령에 따른 양육태도 차이에서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가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보다 처벌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과 일맥상통한다.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개인 중심 접근인 잠재프로파일 분석(LPA)을 활용하여 입양부모의 양육태도를 유형화하고, 각 양육태도 유형의 특성과 입양아동 및 부모 특성에 따른 양육태도의 차이를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 입양부모 집단 내 양육태도의 이질적 하위집단을 구분하고, 입양가정 지원을 위한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입양부모의 양육태도는 네 개 하위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각 영역별 상대적 수준에 따라 무관심형, 허용형, 권위형, 권위주의형으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유형 구분은 Baumrind 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양육유형과 이론적으로 부합하나, 각 유형은 절대적 기준이 아닌 연구대상 집단 내에서의 상대적 수준에 근거한 분류라는 점에서 해석상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가장 바람직한 양육유형인 권위형으로 분류된 집단이라 하더라도 모든 양육태도 영역에서 이상적 범위에 해당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입양부모의 양육태도 평균이 일부 영역에서는 이상적 범위를 벗어나는 등 일반 부모집단과 다른 분포를 보일 가능성에 기인한다. 따라서 전통적인 양육유형 이론을 입양가정에 적용할 때에 맥락을 고려한 유연한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입양부모의 양육태도 영역별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성취압력 영역의 평균이 바람직한 수준의 범위보다 크게 낮고, 감독과 비일관성 영역에서는 바람직한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양부모의 낮은 성취압력은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도록 하여 낮은 성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입양아동의 학업성취가 중학교 진학 이후 크게 낮아진다는 연구결과(안재진, 최운선, 변미희, 권지성, 2017)와 관련될

수 있다. 또한 입양부모의 과잉감독은 입양에 대한 외부의 편견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려는 특성을 반영한 것일 수 있는데, 이러한 높은 감독 수준은 자녀가 어릴 적에는 안정감을 줄 수 있지만, 성장해가면서 아동의 자율성 발달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범위를 크게 벗어난 영역에서는 바람직한 양육태도로의 변화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잠재프로파일 분석(LPA)을 통해 도출된 각 잠재유형의 특성을 살펴보면, 무관심형(15.6%)은 대부분의 하위영역에서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이는 애정 표현과 통제의 수준이 모두 낮은 양육태도를 반영한다. 허용형(25.9%)은 지지표현과 합리적 설명, 감독은 가장 높은 수준이나 통제적이고 요구적인 양육행동은 낮게 나타났고, 권위형(42.5%)은 전반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는 집단으로 가장 균형적인 양육태도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권위주의형(16.0%)은 지지표현과 합리적 설명이 가장 낮고, 성취압력, 간섭, 처벌, 과잉기대, 비일관성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애정 표현은 제한적인 반면, 통제 수준이 높은 양육태도를 나타낸다.

입양아동 및 부모특성에 따른 양육태도 유형 분포를 분석한 결과, 입양아동의 성별, 연령, 입양 당시 연령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부모의 출산 경험, 입양 당시 자녀 수, 입양 전 결혼기간에 따라 양육태도 유형 분포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입양아동의 특성보다는 입양부모 및 가족의 맥락적 특성이 양육태도 유형과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출산 경험이 없거나 입양 당시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입양한 경우, 허용형과 권위주의형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입양부모가 입양자녀의 양육에 보다 집중하면서, 과도한 애정이나 통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반면, 출산경험이 있거나 자녀 수가 많은 입양부모의 경우 무관심형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양육태도 영역별 평균 차이를 살펴본 분석에서는 아동과 부모의 특성에 따라 성취압력, 감독, 처벌, 과잉기대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반복적으로 관찰되었다. 특히 자녀 연령이 낮을수록 감독과 처벌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자녀가 청소년기에 접어들수록 성취압력이나 과잉기대 수준이 증가하는 양상은 발달단계에 따라 부모 역할이 조정되는 과정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입양가정에서도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부모의 양육태도가 변화함을 보여주며, 횡단적 시점에서 관찰된 양육태도 유형 역시 고정된 특성이라기보다는 맥락적·발달적 산물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자녀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입양당시 아동 연령이 높을수록 감독과 처벌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입양적응을 위한 안정적인 애착 형성에 방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입양 초기부터 입양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입양 전 결혼기간이나 입양 당시 자녀 수와 같이 입양가족이

처한 환경에 따라 입양부모의 양육태도에도 차이가 나타났다는 점은 입양부모에 대한 지원 시, 입양가족의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입양부모의 양육태도 유형과 부모·가족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부모교육 및 사후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네 가지 양육유형은 개념적으로 Baumrind의 전통적 양육유형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으나, 이는 기존 이론에 따라 부모를 분류한 것이 아니라, 입양부모의 실제 응답 자료를 기반으로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경험적으로 도출된 유형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특히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입양부모 집단 내부에 서로 다른 양육패턴을 가진 하위집단의 존재를 확인함으로써 입양부모 집단의 내적 이질성을 경험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변수 중심 연구를 확장하였다. 또한 입양부모의 양육태도가 평균적으로 성취압력이 낮고 감독 수준이 높은 특성을 보였다는 점은 입양가정의 특수한 양육 맥락을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입양부모의 양육태도를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단일한 집단으로 간주하기보다는 각 유형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부모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무관심형 부모에게는 부모역할의 중요성 인식과 기본적 양육기술 훈련이, 허용형 부모에게는 적절한 경계 설정과 일관된 규칙 적용 방법에 대한 교육이, 권위형 부모에게는 현재의 균형 잡힌 양육방식을 유지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취약한 하위영역을 강화할 수 있는 지지가, 권위주의형 부모에게는 과도한 통제와 기대를 완화하고 아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양육기술 교육이 필요하다. 나아가 입양가정 지원 정책은 부모의 생애주기, 가족 구성, 입양 시점 등 가족의 맥락을 함께 고려하여 설계될 필요가 있다. 출산 경험이 없는 초보 입양부모에게는 안정적 애착 형성을 위한 양육 가이드와 또래부모 멘토링이, 기존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형제 관계 조정과 공평한 양육 전략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는 과도한 성취 압력과 과잉 기대를 조정하고, 자녀의 자율성과 정체성 발달을 지지하는 부모-자녀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청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국내 입양부모를 대상으로 개인 중심 접근을 적용하여 입양부모 양육태도의 이질적 유형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고, 입양가정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한편,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 참여자들이 입양사후서비스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부모들로 구성되어 있어, 적극적으로 도움을 추구하는 양육 역량을 가진 집단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입양가족의 특성상 표본의 무작위 추출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기존 연구들 역시 입양기관 이용자나 관련 단체 회원을 표본으로 활용하는 방식

을 취해 왔다(안재진 등, 2009; 배윤진 등, 2016).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전체 입양부모 집단으로 일반화하기 어려우며,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입양가족을 포함한 연구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입양부모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비입양부모와의 양육태도 차이를 직접 검증하지 못하였다. 입양부모의 양육태도가 독특한 특성을 지닌다는 점은 선행연구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으나, 이를 실증적으로 비교·검증하는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입양가정과 비입양가정의 부모를 비교하는 연구를 통해 입양부모 양육태도의 특수성을 보다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횡단자료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입양부모의 양육태도의 변화 과정을 직접적으로 분석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입양 이후 시간 경과에 따른 양육태도 유형의 이동과 그 예측 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김미숙・윤혜미(2006).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7(5),** 1-14.

김외선(2012). 불임여성의 입양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가족과 상담, 2(2),** 49-73.

박미정(2009) 국내공개입양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 입양모의 양육행동과 입양모-자녀간의사소통을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0(3),** 69-98

박영애・최영희(2008). 부모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5(3),** 85-107.

배윤진・김아름・송신영・권지성(2016).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II): 입양아동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2016-31.

아동권리보장원(2025). **아동권리보장원.** https://www.ncrc.or.kr

안재진・권지성・변미희・최운선(2009). 국내입양아동의 문제행동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공개입양아동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29,** 187-219.

안재진・최운선・변미희・권지성(2017). 국내입양아동의 학업성취수준과 영향 요인. **한국사회복지학, 69(3),** 141-164.

오성심・이종승(1982).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의적 특성의 관계. **한국행동과학연구소 연구노트, 11(1),** 1-15.

오현정・장유나・홍세희 (2020).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이용한 청소년의팬덤활동 유형분류 및 학업태도의 차이. **교육연구논총, 41(4),** 91-116.

이경님(2004).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5(2),** 79-91.

임경미・양성은(2011). 유자녀입양가족 어머니의 양육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5),** 33-50.

임은주・이근매(2022). 유자녀입양모의 양육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임상미술심리연구, 12(1),** 119-146.

임호찬 (2008). **부모양육태도검사 (PAT).** 서울: 마인드프레스.

정익중・권지성・민성혜・신혜원(2010). 연장입양 가족의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0(29),** 55-84.

최운선・안재진・변미희・권지성(2008). 입양아동의 발달에 관한 종단 연구 II. **아동과 권리, 12(4),** 473-502.

허묘연(200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2(2),** 170-189.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Lawrence Erlbaum Associates.

Asparouhov, T., & Muthén, B. (2012). *Using Mplus TECH11 and TECH14 to test the number of*

latent classes. Mplus Web Notes. Retrieved April 14, 2021 from http:// www. statmodel. com/ examp les/ webno tes/ webno te14. pdf.

Baumrind, D. (1971). Current patterns of parental autho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4*(1, Pt.2), 1-103.

Baumrind, D. (1991). The influence of parenting style on adolescent competence and substance us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1*(1), 56-95.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1), 83-96.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Brodzinsky, D. M. (1987). Adjustment to adoption: A psychosocial perspective. *Clinical Psychology Review, 7*(1), 25-47.

Brodzinsky, D. M. (2011). Children's understanding of adoption: Developmental and clinical implications.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42*(2), 200-207.

Brodzinsky, D. M., & Pinderhughes, E. E. (2002). Parenting and child development in adoptive families. In M. H.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Vol. 1. Children and parenting* (2nd ed., pp. 279 - 311). Lawrence Erlbaum Associates.

Chao, R. K. (1994). Beyond parental control and authoritarian parenting style: Understanding Chinese parenting through the cultural notion of training. *Child Development, 65*(4), 1111-1119.)

Chorão, A. L., Canavarro, M. C., & Pires, R. (2024). Study protocol for the development and preliminary efficacy assessment of AdoptMindful2Care@Web: A web-based mindful parenting postadoption intervention. *Healthcare, 12,* 2100. https://doi.org/10.3390/healthcare12212100

Chorão, A. L., Canavarro, M. C., & Pires, R. (2022). Explaining parenting stress among adoptive parents: The contribution of mindfulness, psychological flexibility, and self-compassion.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9*(21), 14534. https://doi.org/10.3390/ijerph192114534

Colaner, C. W., & Kranstuber, H. (2010). "Forever kind of wondering": Communicatively managing uncertainty in adoptive families. *Journal of Family Communication, 10*(4), 236-255.

Collins, L. M., & Lanza, S. T.(2010). *Latent class and latent transition analysis: with application in the social, behavioral, and health sciences.* Hoboken, New Jersey: Wiley

Dalgaard, N. T., Filges, T., Viinholt, B. C. A., & Pontoppidan, M. (2022). Parenting interventions to support parent/child attachment and psychosocial adjustment in foster and adoptive parents and children: A systematic review. *Campbell systematic reviews, 18*(1), e1209. https://doi.org/10.1002/cl2.1209

Darling, N., & Steinberg, L. (1993). Parenting style as context: An integrative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113*(3), 487-496.

Dozier, M., Stovall, K. C., Albus, K. E., & Bates, B. (2001). Attachment for infants in foster care: the role of caregiver state of mind. *Child Development, 72*(5), 1467-1477. https://https://doi.org/10.1111/1467-8624.00360

Dunbar, N., & Grotevant, H. D. (2004). Adoption Narratives: The Construction of Adoptive Identity During Adolescence. In M. W. Pratt & B. H. Fiese (Eds.), *Family stories and the life course: Across time and generations* (pp. 135 - 161).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Fishbein, M., & Ajzen, I.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 Addison-Wesley.

Gershoff, E. T. (2002). Corporal punishment by parents and associated child behaviors and experiences: A meta-analytic and theoretical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28*(4), 539-579.

Grotevant, H. D., Dunbar, N., Kohler, J. K., & Esau, A. M. L. (2000). Adoptive identity: How contexts within and beyond the family shape developmental pathways. *Family Relations: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pplied Family Studies, 49*(4), 379 - 387. https://doi.org/10.1111/j.1741-3729.2000.00379.x

Hodges, J., & Tizard, B. (1989). Social and family relationships of ex-institutional adolescent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0*(1), 77 - 97.

Hooper, E., Feng, X., Christian, L., & Slesnick, N. (2015). Emotionality, depressive symptoms, and stress: Maternal profiles related to child outcome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3,* 1319-1331.

Jarrett, C. L. (2022). *Adopting the Older Child.* **큰아이 입양하기.** 김외선(역). 경기: 한국입양가족상담센터.

Juffer, F., Bakermans-Kranenburg, M. J., & van IJzendoorn, M. H. (2005). The importance of parenting in the development of disorganized attachment: Evidence from a preventive intervention study in adoptive familie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6*(3), 263-274.

Kirk, H. D. (1964). *Shared fate: A theory of adoption and mental health*. New York: Free Press.

Lamborn, S. D., Mounts, N. S., Steinberg, L., & Dornbusch, S. M. (1991). Patterns of competence and adjustment among adolescents from authoritative, authoritarian, indulgent, and neglectful families. *Child Development, 62*(5), 1049-1065.

Maccoby, E. E., & Martin, J. A. (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Parent-child interaction. In P. H. Musse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pp. 1-101). New York: Wiley.

Nylund, K. L., Asparouhov, T., & Muthén, B. O. (2007). Deciding on the number of classes in latent class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A Monte Carlo simulation stud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14*(4), 535-569.

Palacios, J., & Brodzinsky, D. (2010). Adoption research: Trends, topics, outcom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4*(3), 270-284.

Rato, M. P., Serra, J., Gonçalves, B. B., Canavarro, M. C., & Pires, R. (2025). Exploring the association between adoptive parents' attachment orientations and adoptees' emotional and behavioral difficulties: The role of parents' self-compassion and mindful parenting.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99, 101816.

Rodrigues, M., Rato, M. P., Canavarro, M. C., & Pires, R. (2024). Associations between preadoption maltreatment and adoptees' emotional and behavioral difficulties: The buffering role of mindful parenting. *Mindfulness, 15*, 1395 - 1414. https://doi.org/10.1007/s12671-024-02369-8

Rothrauff, T. C., Cooney, T. M., & An, J. S. (2009). Remembered parenting styles and adjustment in middle and late adulthood.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4*(1), 137 - 146. https://doi.org/10.1093/geronb/gbn008

Schaefer, E. S. (1959). 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9*(2), 226-235.

Sorkhabi, N. (2005). Applicability of Baumrind's parent typology to collective cultures: Analysis of cultural explanations of parent socialization effect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9*(6), 552-563.

Steinberg, L., Lamborn, S. D., Dornbusch, S. M., & Darling, N. (1992). Impact of parenting practices on adolescent achievement: Authoritative parenting, school involvement, and encouragement to succeed. *Child Development, 63*(5), 1266-1281.

van den Dries, L., Juffer, F., van IJzendoorn, M. H., & Bakermans-Kranenburg, M. J. (2009). Fostering security? A meta-analysis of attachment in adopted children.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1*(3), 410 - 421. https://doi.org/10.1016/j.childyouth.2008.09.008

Vermunt, J. K., & Magidson, J. (2002). Latent class cluster analysis. In J. A. Hagenaars & A. L. McCutcheon (Eds.), *Applied latent class analysis* (pp. 89 - 106). Cambridge University Press.

Abstract

Parenting Attitude Types among Korean Adoptive Parents: A Latent Profile Analysis

Kim, Woi Seon* · Ahn, Jae Jin**

This study identifies subtypes of adoptive parents' parenting attitudes using latent profile analysis (LPA) and examines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adoptive children and parents. Data from 216 adoptive parents were analyzed. Parenting attitudes were measured across eight domains: expression of support, rational explanation, achievement pressure, interference, punishment, supervision, overexpectation, and inconsistency. LPA identified four distinct profiles. The uninvolved type (11.6%) showed low scores across all domains. The permissive type (32.4%) displayed high support and rational explanation but low supervision and control. The authoritative type (40.7%) showed a balanced pattern of positive parenting and appropriate supervision. and the authoritarian type (15.3%) exhibited high achievement pressure, punishment, and excessive expectation. Profile distribution did not differ significantly by adoptees' gender, age, or age at adoption. However, significant differences emerged according to parents' childbirth experience, number of children at adoption, and length of marriage before adoption. These findings highlight heterogeneity in adoptive parents' parenting attitudes and underscore the need for parent education and post-adoption support services tailored to parenting attitude types and family contexts.

Keywords : adoptive parents, parenting attitude types, latent profile analysis

* Director, Korean Association of Adoptive Family Counseling & Education
**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achon University